

건축은 그 시대
생활상의 종합적 지표



□ 日人들 틈에서 공부 — 열세명중 셋만 한국인, 결국 혼자만 남아

□ 出生地 / 함경 함흥시 / □ 학력 및 경력 /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졸업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수로 / 조선총독부영선계기수 / 서울공대 건축학과교수 / 한국건축가협회장 / 대한 건축학회장 / 국전운영위원 / □ 주요 작품 / 서울농대교사·강당 / 서울공대 기숙사 / 서울사대 과학관·도서관 / 워커·힐 주건물 / 수원 종합원호원 / 경기도청사 / 서울대 종합컴퓨터스마트플랜 / 정신문화연구원 / 한국태양에너지 태양열주택모델하우스 및 보급센터 / □ 수상경력 / 서울특별시문화상 / 대통령표창상 / 대한건축학회 작품상 / 국민훈장무련장

☞ 対談 黄一仁 (본지 편집위원)



□ 黄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건강은 언제 봐어도 좋아 보이십니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 모양이지요.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 金 사실은 지나간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이렇듯 저렇듯 회고담이나 하고 싶지가 않아 다른데서도 이런 기회를 갖자고 하는걸 모두 사양해 오고 있는 터입니다. 지난봄 정년퇴임한 후에 학교는 일주일에 하루씩 나가고 있습니다만 몇군데 기관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고 또 탄 대학에도 몇개 강의를 떠 받게 되어 할일없이 바쁩니다.

□ 黄 박사님은 고향이 함경도시지요?

□ 金 저는 함흥시에서 소지주의 세째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 서당을 다니다가 함흥고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항일 학생운동과 관련되어 퇴학당하고 서울로 오게 되었죠. 보성고보를 거쳐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신인 경성고공 건축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건축과 학생이 모두 열세명이었는데 한국인 학생은 세명 뿐이었습니다. 한분(安尚英)은 이미 작고하고 한분(李樑)은 기계과로 전공을 바꾸셨기 때문에 건축과 동기생(1937년 졸업) 중 혼자 남은 셈입니다.

□ 黄 지금은 건축과를 나온 후 취직할 수 있는 길 이 비교적 다양하고 또 사회적 수요도 매우 많아서 건축과졸업생의 인기가 꽤 많은 편입니다만 그때는 어떠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 金 당시는 졸업 후 주로 관공서 같은데로 취직하지 않으면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던 때라 지금하고는 사정이 매우 달랐다고 할 수 있지요. 저는 졸업후에 군대로 끌려갈 수도 없고 해서 소위 조선총독부의 관방회계과 영선계에 취직했습니다. 그 후 동경 건물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그 당시 설계했던 건물이 황해도의 명신중학교 강당,

□ 설계사무소 운영하며 서울농대·사범대·공대 기숙사등 작품남겨

현 그랜드호텔 자리에 있던 건물, 명동의 白井빌딩, 또 田中씨주택(旧대법원장 공관) 등이 있습니다.

□ 黃 현대 건축을 수용하는 과정이 일본이라는 통치국을 통해서였다는 것과 해방후의 민족 분단에서온 비극적 혼란때문에 한국은 현대건축의 시작부터가 상당히 파행적이었다고 보아 집니다.

□ 金 비단 건축뿐 아니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요. 제가 학교다니고 할 무렵 꼬르뷔제 전집같은 것이 건축도들에게 상당한 감명을 주긴 했지만 물론 한국적 건축의 바탕이랄까. 주관적 입장에서 이를 볼 처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해방후 저는 처음 주택영단에서, 육이오 동란시 부산 피난지에서 철도청 건물에서 전후 북구 등 당장 필요한 건물 설계를 하였읍니다마는 사실상 60년대에 들어가기까지는 「건축」다운 작업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었죠.

□ 해방직후 9~10여명이 모여 家協會 만들고 우리나라 건축계 이끌어

□ 黃 일제시대를 제외하면 50년대말 부터 60년대까지가 우리손에 의한 현대 건축의 수용기가 되겠군요. 당시 이야기를 좀더 해 주시죠.

□ 金 6.25피난시절인 부산에서 서울공대에 부임했습니다. 57년 미국에서 돌아와 본격적으로 건축설계에 종사했다고 할 수 있지요. 당시 건축계에는 20~30명 정도가 활약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덕문, 김창집씨 등과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였지요. 그때 남긴 것이 서울농대의 교사 및 강당을 비롯하여 사범대, 서울공대의 기숙사 등입니다. 당시 건축가들중 9~10명이 모여서 지금 건축가 협회등을 발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합니다.

□ 黃 최초의 본격적인 현상공모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의 현상설계가 60년대에 있었죠.?

□ 金 그렇지요. 남산의 국회의사당계획은 결국 자유당 정권의 붕괴와 함께 취소되고 말았지만 당시로는 커다란 행사였습니다. 김수근, 박춘명씨등이 이때 데뷔 하게 되지요.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된 아파트단지라 할 수 있는 마포아파트, 또 위락시설 콤플렉스인 워커히들 규모에 있어서나 시설 내용에 있어서나 한 걸음진보한 사업들이 계획되었습니다. 워커히은 강명구, 엄덕문, 이희태, 나상진, 김수근 씨등과 함께 참여했었는데 제가 설계했던 메인 빌딩은 몇년전 호텔을 짓느라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 黃 전통문제에 대한 논의도 그 무렵에 대두되기 시작하였죠.

□ 金 종합박물관을 건립하면서 대두되었습니다. 돌이

□ 종합박물관 건립하며 전통성 논의 시작돼—, 계속 정진되어야 할 숙제

켜보면 60년대 우리나라 건축계는 우리 근대사의 비극처럼 정통성이라는 뿌리에서 피어난 식물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국제주의적인 경향이 무비판하게 수용되던 극단적인 상황이었지요. 전통에 대한 해석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읍니다. 「버나클러」문제는 사실상 지금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읍니다. 「팀10」이후 현대건축에서 추구해온 것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풍토주의적 경향이라고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약간 이상한 경로로 제기되긴 했지만 전통성에 대한 추구는 건축의 본질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黃 서양의 근대건축이 산업사회의 산물인데 비하여 우리에게는 그러한 당위성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A. 토플라 에 의하면 서양의 산업사회는 50년대 중반부터 제3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산업사회로 진출했던 시기와 일치한 것이 재미있습니다. 어쨌던 70년대 우리 건축에는 산업사회의 특질이라고 하는 「표준화」「동시화(SYNCHRONIZATION)」의 경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새마을 주택등에 나타난 이런 조류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요?

□ 金 70년대에 양적으로는 건축물이 많이 늘어났으나 이에 상응할 만한 질적 성장이 있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영동지역만해도 과연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생활환경이 이러한 것인가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70년도 건축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온 새마을 주택만해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도급 건축가의 참여가 외면된 채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한, 또 앞으로 지불해야 할 실패작입니다.

어쩌다 찌그러져가는 옛 동네에 들어서게 되면 가슴에 반짝하며 참 좋았구나, 마을이란 것이 있었구나-하고느낍니다. 요즘 새마을 주택은 마치 도시 산업의 찌꺼기 같이 보입니다.

□ 양적으로 늘어난 70년대의 한국건축—, 앞으로 이점에 대한 평가 있어야.

아시다시피 건축은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일찌기 기어온은 「어느시대의 성격은 그 시대가 아무리 위장하려해도 건축으로 반영된다」고 했지요. 건축은 단적으로 그 시대 생활상의 종합적 지표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다양해 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건축에 미칠 수 있는 건축가의 역할은 점점 제한되어 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이러니 별수 없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럴수

□ 건축을 공부한 사람은 작품해야하고 교수도 작품으로 논문대신해야

록 건축가는 더욱 한발 앞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진취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黃 그 많은 자원과 노력을 들인 좋은 기회를 슬기롭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국가적인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A. 알토 같은 분이 말했듯이 좋은 하우스는 좋은 개개의 건물을 아무리 갖다 놓아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놓인 마을, 도시, 지역들이 서로 조화있는 배경으로 될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것 같이 이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수준의 향상없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설계 조직으로써 토탈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평소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金 미국의 베케트가 「토탈디자인」의 개념을 말했죠. 어느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작품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사람이 모인 총체적인 의견이 건축물에 반영되어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는 개인의 영웅주의적인 의식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픽도 내부 혹은 외부에 큰 영향을 주고있고,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외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여러가지가 현재에는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건축가 개인이 다할 수는 없고, 따라서 앞으로 설계사무소 운영도 여러 아이디어가 총체적으로 모여 공동체로서 움직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니다.

□ 黃 김박사님께서서는 평생을 교육계에 바치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건축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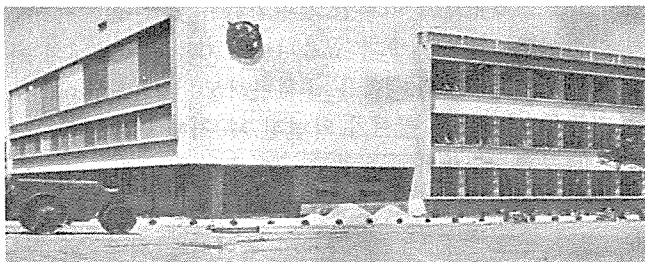
□ 金 할애기가 많으나 내가 못한것이라서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건축공부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건축작품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업체등으로 나가고 있는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죠. 그러나 역시 작품을 빼면 건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의 범위도 人文社会的인 것에 많은 포지션을 두어야 합니다. 건축만으로는 이제는 안될 것입니다. 분야가 넓어지잖아요. 오히려 기술등은 자료를 통해 쉽게 얻을수 있지만 철학, 사상등은 역시 많은 공부를해야할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건축은 독립된 대학으로 되어서 종합적으로 육성시켜야 될겁니다. 또 대학교수들의 논문을 작품으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어야 합니다. 책이나 글만으로는 안되고 교수들도 역시 작품활동을 해야 할줄 압니다.

□ 黃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 金 무엇보다도 우리 건축사들이 건축행위를 단순히 건물에 국한하여 생각지 말고 환경창조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다룸으로서 우리 생활의 질을 높히는데 힘써야겠습니다. 국민주택의 보급, 올림픽등 많은 문제, 산적한 일거리를 앞두고 건축사 협회가 앞장서서 건축인들의 유대 강화에 힘써주기를 당부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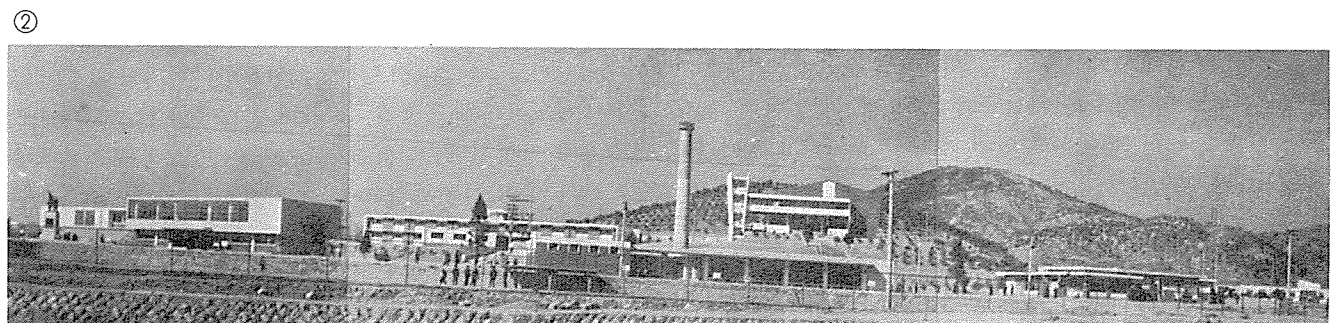


①

- ① 서울대 농대
- ② 종합원호원
- ③ 서울공대도서관



③



②